

그대

2. 17. 1981

그대여 내 비자리는
깊은 밤처럼 고요하여
남겨진 그림자마저
숨을 죽여 두었습니다.

힘겨운
속삭여 던짐을
흔들어진 꽃잎처럼
아련한
항기만 남기고
차가운 바람은
성빈 가슴을
여유시리게
합니다.

잠의 손을 내밀어도
닿을 수 없는 그대
아득한 그 이름만
흔들려 버린 밤

사랑은 한 줄기
덧없는 꿈 같아
깨어나니
모든 것이 사라지기
버렸습니다.

이제
흔들림겨진 이 자리에서
그대의 사랑을
조용히
아픈 데 기억합니다.

부디 그대는 행복하기를
나의 슬픔까지 모두 잊고
새로운 사랑 속에서
영원히 웃을 수 있기를

나의 잊어버린 사랑
부디 안녕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

사랑 <이광수>

작품 설명

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겨졌을 때, 마음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립니다. 『고백』은 그런 머뭇거림 속에서 피어난 시입니다. 이별은 끝이 아니더군요. 오히려,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그제야 조용히 제 안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.

이광수의 『사랑』을 읽으며,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제 오래된 감정과 포개졌습니다. 이 시는 그 사랑과 이별, 그리고 남겨진 마음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려 했던 기록입니다.

사랑은 때로 꿈결처럼 스치고, 이별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.

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음을 믿기에, 이 시는 고통 속에서도 다정하고 싶었습니다. 떠나간 이를 원망하는 대신,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. 그게 제가 『고백』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, 사랑의 마지막 얼굴입니다.

누군가 이 시 앞에 잠시 멈춰, 자신의 기억 속 사랑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, 그 순간만으로도 이 시는 다 닿았다고 믿습니다.